

여수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재산권 보호 앞장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게 1314필지 찾아줘
시·군·구청 방문 신청시 무료 토지 조회 가능

여수시가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들에게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여수시는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게

1,314필지 140만㎡의 토지를 찾아줬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신청 즉시 조회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증빙서류를 통해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고흥군, 지방자치경영대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인정

고흥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계의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선발하고 공유·확산하는 대회이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동안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사례를 제출해 농축특산물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축특산물 분야 우수상 수상

미국·유럽 바이어와 351억 협약

세부적으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유통업체 및 바이어들과 351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해 '20년 고흥군의 농수특산물 수출액 역대 최대 달성'으로 이어진 것과, 롯데슈퍼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유통마케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판로를 개척한 것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고흥군 농수특산물 대표브랜드인 '노랭이'를 개발하고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을 운영해 마케팅과 직거래를 강화한 것도 코로나19 시대 변화한 소비트렌드에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 받았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소득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고품질 농수특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소득 3000만원 시대 달성을 '민선 7기' 주요 군정 목표로 정하고 농수특산물과 관광산업, 드론·우주·항공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원예작물 품질 향상

내년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 위해 사업비 25억 원 투입

광양시는 2022년에도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원에 농가의 시설현대화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14억 원으로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양액재배시설 배치 교체 지원사업, 수박 생력과 재배 지원사업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300평 이상 규모의

시설하우스 설치사업만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300평 미만의 다목적 중소형 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영세농가와 다양한 소득작목 경영을 원하는 농가의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발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사업비 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파이프 등 시설하우스 자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 증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는 세부 사업단가를 조사함으로써 농가가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선용 원예특작팀장은 "광양시 시설원에 작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 본격 시작

기념식 개최

순천시는 15일 '순천 시민의 집! 새로운 미래 100년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신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 기념식을 가졌다.

신청사의 새집을 얻어 만복이 깃들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 의미로, 순천시립 어린이 합창단이 새집 마중노래로 '두껍아 두껍아'를 합창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새로운 미래 100년이 시작됩니다.' 글귀가 새겨진 대형현수막이 펼쳐지고 굴삭기가 철거 대상건물을 시타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랜 순천시민



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신청사가 우리 순천시의 자랑스

로 그리고 시민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30만 자족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품산개 자연 한쌍을 분양받았다. ((사진 왼쪽 가을이(숫컷) - 오른쪽 아름이(암컷))

청와대에서 분양받은 '아름'이와 '가을'

순천시는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품산개 자연 한쌍을 분양받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키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은 품산개 '곰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키우고 있던 품산개 '마루'사이에서 7마리 새끼가 태어나 청와대가 전국 지자체에 분양 계획을 밝혔고 순천시가 분양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순천시로 온 품산개는 7마리의 강아지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암컷인 '아름'이와 수컷인 '가을'이다. 아름이와 가을이는 14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협센터 내에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살게 되며 전담 사육사에게 사회적인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정이다.

또한 순천시의 마스코트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수행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시민·관광객들과 교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려는 성향이 강한 개들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순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아름이와 가을이의 순천시 입양을 축하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 하였다.

한편, 순천시는 2022년 상반기 중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아름이와 가을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돌볼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